

‘굳히기’는 없다, ‘뒤집기’는 있다…4강 정조준

KIA 주간 전망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전반기 막바지, 중위권 싸움의 분수령에 선다.

16일 현재, KIA는 시즌 성적 34승 33패 1무로 리그 7위에 머물러 있다.

1·2위와는 6경기 이상 벌어져 있지만, 3위와는 3경기, 4위 2경기, 5위 1.5경기, 6위와는 단 0.5경기차로 중위권 싸움이 그야말로 접입가경이다. 순위표는 여전히 뻥뻥하고 하루 결과에 따라 판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해 삼성과 NC를 상대로 3승3패 반타작에 그쳤지만, 5할 승률을 지켰고, 상위팀들과의 격차도 최소로 유지했다.

●프로야구 팀별 순위

〈15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한화	41	27	1	0.603	0
2	LG	40	27	2	0.597	0.5
3	롯데	37	30	3	0.552	3.5
4	kt	36	31	3	0.537	4.5
5	삼성	36	32	1	0.529	5
6	SSG	34	32	2	0.515	6
7	KIA	34	33	1	0.507	6.5
8	NC	29	33	4	0.468	9
9	두산	27	39	3	0.409	13
10	키움	20	50	2	0.286	22

2게임차 kt·0.5게임차 SSG ‘판 흔들고 도약’ 호기 믿는 건 ‘백업 투혼’…원정 9연전 기선 제압 관전

주전 다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KIA는 이번 주도 백업 자원들의 투혼에 기대야 한다.

무너질 듯 끝내 버티는 ‘잇몸 야구’, 지금의 KIA는 실력보다 투지, 이름값보다 책임감으로 승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는 상위권 도약의 절호의 기회다. 상대가 모두 중위권 경쟁팀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상대로 연승에 성공한다면, KIA는 순위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다.

먼저 홈에서 4위 kt와 3연전을 치른다.

최근 10경기 6승 4패의 흐름을 탄 kt는 투타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지난주 팀 타율 0.333으로 리그 1위에 올랐고 중심엔 혜성처럼 등장한 우타 거포 안현민이 있다. 올 시즌 41경기에서 13홈런을 터뜨리며 리그를 뒤흔들고 있다.

KIA로선 kt의 불타오른 타선을 어떻게 묶느냐가 시리즈 성패의 관건이다. 상대 전적은 KIA가 4승 5패로 열세다. 무엇보다 안방에서 치러지는 이 시리즈에서 워닝시리즈 이상을 확보해야, 이후 이어지는 원정 9연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어 주말에는 문학 원정에서 6위 SSG와 3연전을 갖는다. SSG는 평균자책점 리그 1위의 앤더슨과 도종 애시스 김광현, 용병 화이트가 버티는 선발 마운드가 강점이다. 반면,

타선은 득점권 타율이 리그 최하위로 약점이 뚜렷하다. 이 시리즈의 최대 승부처는 단연 애시스 맞대결이다. KIA ‘에이스’ 네일은 21일 SSG 앤더슨을 상대로 문학구장 KBO 첫 승에 도전한다.

현재 SSG는 순위표 바로 앞에 있는 팀이다. KIA가 연승을 거둘 경우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중위권 판도를 가를 중요한 일전이다.

또한, 이 시리즈는 향후 일정상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흐름을 잡아야, 수도권 원정 9연전 초반부터 주도권을 쥘 수 있다. SSG전 이후 엔 키움(고척), LG(잠실)와의 수도권 6연전이 기다린다. KIA의 전반기 마지막 최대 고비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역시나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체력 안배다. 특히, 불펜진의 과부하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마무리 정해영은 이닝과 투구 수 모두 팀내 최다(31경기 35이닝, 경기당 15.9구)로, 이미 지난 시즌 전반기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 중이다.

불펜의 핵심 조상우(36경기 31.2이닝)와 전상현(38경기 33.2이닝) 역시 과중한 등판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필승조의 효율적인 운용업이는 전반기 마무리조차 쉽지 않다.



김호령

박찬호

〈KIA 타이거즈 제공〉

타선의 폭발도 절실하다. 지난해 KIA의 팀 타율은 0.237로 리그 9위에 그쳤다.

그나마 김호령이 득점권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주득점원 역할을 해내고 있고, 박찬호도 공수에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초반에 점수 차를 벌려 후반 불펜 부담을 줄이는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KIA는 전반기 21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김도영과 나성범 등 주축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백업들의 투지로 버티는 야구는 계속된다.

전력 공백 속에서도 KIA가 이번 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반기 흐름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주홍철 기자

광주체중 송채연, 亞주니어선수권 단체종합 ‘銀합작’

‘여자체조 유망주’ 송채연(광주체중 3년)이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단체종합 은메달을 합작했다.

송채연은 지난 13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5 여자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 여자 주니어 부문 단체종합에서 탁소민(합포중)·이혜진·이세연(이상 서울체중)·박혜란(한일중)과 팀을 이뤄 137.696점을 기록, 일본(152.897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마지막까지 홍콩(137.029점)과 접전을 벌였으나 집중력과 연기 완성도에서 앞서는 메달을 확정지으며 세계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개인종합에서는 일본의 토미 미나미가 56.16점으로 금메달, 사리다 아유가 50.466점으로 은메달, 필리핀의 안톤 엘리자베스가 48.565점으로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송채연은 이단평행봉과 평균대 종목별 결승에 진출했으나 두 종목 모두 5위에 그쳐 추가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홍윤식 광주체육중 체조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송채연을 비롯해 주니어 선수들이 국제



2025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주니어 단체종합에서 은메달을 합작한 송채연(왼쪽 두번째)이 시상식 후 여자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과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체중 제공〉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한국 체조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축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23개국에서 600여 명이

참가해 10일간 남자 6종목(마루·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여자 4종목(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을 시니어와 주니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박희중 기자

지역 연고 AI페퍼스, 새 시즌 힘찬 도약 광주시체육회·남구체육회가 응원합니다

광주시체육회와 남구체육회가 광주지역 연고 프로배구단인 페퍼커피는 AI페퍼스의 사기를 진작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6일 “최근 전갑수 광주체육회장, 박재홍 남구체육회장, 김동언 AI페퍼스 단장, 장소연 AI페퍼스 감독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재홍 남구체육회장은 영무건설 회장이자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회장도 맡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지역 원로체육인이다.

최근에는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 긴급 구조 활동 지원, 적십자 무료급식소 개소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해 오고 있다.

체육 분야로는 전국 22개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지역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전갑수 광주체육회장은 “평소 존경하는 박재홍 회장과 뜻을 같이해 매우 기쁘



전갑수 체육회장(왼쪽), 김동언 AI페퍼스 단장, 박재홍 남구체육회장 기념품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다”며 “빛고을 체육인들의 정기를 받아 AI페퍼스가 올 시즌에 선전해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최고의 배구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장애인체육회·한전MCS·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업무협약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한전MCS(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과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성진 한전MCS 대표이사,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선수의 일자리 창출, 고용증진, 체육 활동 지원, 선수 발굴 및 대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전MCS는 장애인 채용 분야를 확대하고, 올해 안에 약 30명의 장애인 체육선수를 채용해 이들의 체육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한전MCS는 전남 지역 여러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지원과 위기 가구 발굴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온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선수를 비롯

해 전남지역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진 한전MCS 대표이사는 “ESG 선도경영 실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명가한방병원, 건강증진 업무협약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명가한방병원과 건강 증진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열린 협약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동석 명가한방병원 대표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명가한방병원은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도수치료·암·치매 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됐다.

협약에 따라 본인 및 가족 진료비 부담금 30% 할인, 한약 30% 할인, 유전자·암·치매 검사비 할인, 도수치료·DNA주사 할인 등이 제공된다.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명가한방병원과 협약을 통해 임직원과 장애인 선수들이 폭넓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기쁘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명가한방병원은 첨단2지구 바로병원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방, 한방과 양방 협진, 중의학 치료를 접목한 체계적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